한국농촌생활과학회지
Vol. 6(1), 41~54(1995)

도시근교 농촌부부의 갈등표출행동에 관한 연구

이정화·최은숙·한경혜
서울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 농가정학과

Conflict Resolution Acts of Rural Spouses

Lee, Jeong-Hwa·Choi, Eun-Sook·Han, Gyoung-Hae
Department of Home Economics, College of Agriculture and Life Sciences, Seoul National University.

ABSTRCT :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marital conflict resolution acts (CRA) of rural spouses and to explore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CRA and several important factors ; socio-demographic, marital relation and drinking pattern factors. Participants in this study are 150 rural women who are married and live with their husband. A modification of the Conflict Tactics Scale is used to measure the CRA of four levels ; reasoning, verbal aggression, minor physical violence, and heavy physical violence. The major finding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the frequencies of each type of the CRA-reasoning, verbal aggression, minor physical violence and heavy physical violence-are 12.1%, 57.9%, 17.1% and 12.9% respectively. Therefore, the verbal aggression is the most prevalent type of the CRA. Second, the result from multiple regression shows that the conflict from husband's whoring, husband's drinking capacity and family type have a meaningful impact on husband's physical violence.

Key Words : Rural spouses, Marital relation, Conflict resolution acts, Verbal aggression, Physical violence.

Ⅰ. 문제제기

1960년대 이후 지속적인 경제성장 및 산업화의 영향으로 우리 사회는 여러부문에서 많은 변화가 진행되어 왔으며, 그중에서도 농촌가족은 매우 심각한 변화의 핵심에 놓여 있었다. 가족내에서 자녀의 교육과 직업상의 이유로 별거가족이 증가했고 이농현상의 심화로 농촌의 인구학적 배경 자체가 과거와는 전혀 다른 양상을 보이게 되었다. 가족구조의 변화는 가족의 기능과 역할, 가족원간의 관계변화를 낳아, 부자관계를 중시하던 전통가족의 특징은 사회의 구조적, 이념적 변화의 틀에서 부부관계를 강조하는 것으로 변모했다. 현대의 부부관계는 과거 수직적인 위계관계에서 수평적, 동료적 관계로 변화되어 가고 있으며 자유로운 의사소통, 융통성 있는 역할수행, 애정중심적인 관계가 부부관계에서 중요한 특성으로 강조되고 있다. 여기에 현대의 매스 커뮤니케이션은 도/농간 의식의 교량역할을 하고 있어 여성의 의식은 도시와 농촌을 가릴 것 없이 보다 진보되고 있다. 더구나 농촌사회에서 여성의 농업노동에의 경제적 기여가 매우 증가하는 현실에서 경제적 자원의 공동 생산은 가족관계에서의 변화를 가져와 농촌여성의 사회적 지위향상과 더불어 남편과의 대등한 관계 양상으로 나타날 것으로 생각된다.

요즘 누가 마누라를 때린답니까? 그래서 농촌에 남아날 여자가 어디 있답니까? 우리 남자들은 같이 살아주는 게 고마와서 다들 다독거리고 잘들 살아요.

농촌에 사는 한 농어민 후계자의 말이다. 농촌

* 본 연구의 일부는 1995년 서울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 농업개발연구소의 연구비 지원에 의해 이루어진 것임.

총각들의 결혼이 어려워지고 농촌에 정착하려는 여성이 점점 드물어 지는 요즘의 세태에서 남자들은 농촌에 같이 살아주는 부인에게 고마와 하고, 그러기에 요즘 부인들의 지위가 향상되어 있다고 한다. 과연 한 농어민 후계자의 말처럼 과거와는 비교도 안되게 여성의 지위가 나아져, 보다 민주적인 부부관계를 영위하고 사는 것일까?

선행연구들은, 농촌지역에서는 사회변화의 추세는 불가피하게 수용하면서도 내면적인 가치관은 여전히 변화되지 않고 있다고 한다. 박혜인(1991)은 부부관계에 있어서 부부간 역할분담의 상호 융통성은 증가하지 않은 채, 부인의 농업노동 역할만이 현저히 증가되어 부인의 부담이 가중된 반면, 이에 상응할만한 정도의 의사결정권이 주어져 있지 않다고 지적하면서 이를 농촌가족에서 가부장제 이데올로기의 지속으로 해석하고 있다.

조옥라(1990) 역시, 농촌가족의 부부관계에서는 일을 하면서 가계를 꾸려가는 협력자로서의 측면은 강하지만 이러한 협력관계가 이들의 대등한 사회적 관계를 만들어 주지는 않는다. 그래서 여성농민의 경제적 기여는 암묵적일 뿐이고 현실적으로 처분가능한 자원은 거의 없으며 여기서 전통적인 부부의 위계적 관계가 그대로 유지된다고 하였다.

농촌가족의 이러한 불균형적 관계는 가족원간의 긴장내지는 갈등으로 표출될 가능성이 많으나(한경혜, 장미나, 1993) 실제로 농촌가족에서 부부관계를 살펴본 연구는 몇편에 불과한 실정이고 또한 이 연구들은 농촌 부부관계를 주로 '의사결정'이라는 틀로써 접근하여 왔다. 그런데, 부부의 권력구조가 극도로 남편지배 또는 부인지배일 때 폭력사용이 높아진다(Straus, 73)는 점이나 부부중 1인에게 권력이 집중되어 있는 경우 부부의 폭력행동이 훨씬 더 많이 발생한다(전춘애, 1989)는 실증적 연구들은 '갈등표출행동'이 부부간 권력구조나 지위 등 부부 관계의 역동성을 살펴보기에 적합한 틀임을 나타내 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부부관계 연구에 있어서 갈등표출행동은 포괄적, 체계적으로 검토되지 못하고 주로 남편의 부인에 대한 신체적 폭력행동에만 촛점을 맞추고 있으며 우리사회 전반적 수준에서 일어나는 언어/심리적 폭력행동은 간과해 온 경향이 있다. 그리고 부부관계의 다양성이나 남편의 음주패턴과 같은 가족상황적 측면과 갈등표출행동의 관련성이 다루어지지 못하고 있으며, 거의 모든 연구가 도시 일부지역을 대상으로 부분적으로 진행되어 오고 있을 뿐(김정옥, 1985, 1988 ; 송영자, 1990 ; 변화순, 1992 etc) 농촌지역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전혀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 논문은 농촌부부의 관계적 역동성을 농촌부부의 갈등표출행동으로써 살펴보고자 한다. 현대가족의 부부중심의 가치와 농촌여성의 농업노동에의 기여가 농촌의 부부관계를 보다 평등한 관계로 잡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아직도 농촌은 가부장적 가치와 전통적 남녀 위계관계 선상에서 표류하는지 파악하기 위하여 먼저, 갈등표출행동 분포로써 이성적 집단, 언어/심리적 폭력집단, 가벼운 신체적 폭력집단, 심한 신체적 폭력집단으로 유형을 구분한다. 두번째는 갈등표출행동이 나타나는 배경을 알아보기 위하여 사회인구학적 변인, 부부관계변인, 음주패턴 변인과 갈등표출행동 집단의 분포를 살펴본다. 세번째는 남편의 부인에 대한 폭력행동을 가장 잘 설명할 변인들로 회귀모형을 구성하고 회귀분석을 통하여 폭력행동에 결정적인 변인들을 추출해내기로 한다.

Ⅱ. 선행연구 고찰

Markman, Floyd, Stanley, & Storaasli(1988, 전효정, 1995 재인용)의 연구에서는, 갈등문제 그 자체보다는 어떻게 그 문제를 해결하는가 하는 것이 더 중요하며 이는 결혼의 성공여부에 중요한 결정요소라고 한다. 그래서 보다 건설적인 갈등표출행동은 부부관계의 질을 높여줄 것이라 한다. 사실, 우리사회에서는 과거 가정내 폭력을 당연시하고 문제로 인식하지 않았던 데서 벗어나 가족일방에 의한 학대, 폭행은 부당하다는 인식이 확대되어 가고 있다. 1980년대 부터 나오기 시작한 가족내 폭력에 관한 논문들은 비록 체계적인 연구라고 보기엔 미흡한 감이 없지 않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

정내 폭력에 대해 다각적으로 분석하려는 시도를 보이고 있다. 이들은 폭력행동과 사회인구학적 배경변인, 의사결정으로 본 부부권력, 폭력행동에 관한 과거의 경험, 부부관계의 여러 갈등영역, 결혼불안정성등을 연결시켜 살펴보고 있다.

부부의 갈등표출행동에 관하여 스트라우스와 그 동료들은(1980; 김정옥, 1988, 재인용) 16%의 부부가 조사당시 일년동안 신체적 폭력을, 28%의 부부가 전 결혼생활을 통해 폭력을 경험한 적이 있다고 보고 하였다. 우리나라의 경우, 김정옥(1988)의 연구에서는 응답자중 남편의 폭력행동을 경험한 사람의 비율이 51.5%에 이른다고 하여 반수 이상의 남편이 갈등표출행동으로 신체적 폭력을 행사하는 것으로 보고했다. 이 결과로써 폭력행동의 정도는 말할 수 없지만 서구의 경우보다 더 많은 여성이 남편의 폭력에 방치되고 있고 가정내 폭력이 사회전반에 만연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국내 대부분의 연구가 가정내 폭력을 측정하는 도구로써 Straus의 CTS(Conflict Tactic Scales)를 사용한 반면, 전효정(1995)은 3가지의 갈등해소방법으로 건설형, 파괴형, 회피형으로 나누어 측정한 결과 조사대상자의 대다수가 건설적 해소방법을 사용하였고(64.6%), 다음으로 파괴적 유형, 회피적 유형을 각각 20.7%, 14.9% 사용한다고 하였다. 그리고 건설적 유형을 사용하는 사람들의 결혼적응도가 높은 경향을 보였으며 남편이 파괴형이고 부인이 회피형을 사용할 경우 가장 낮은 결혼적응도를 보여 갈등표출행동이 건설적일수록 부부간의 적응이 잘 됨을 나타내 주고 있다.

한편, 전춘애(1989)는 고교생을 대상으로 부모의 사회계층에 따른 부부권력과 폭력과의 상관관계를 본 결과, 남편과 부인이 사용하는 폭력수준에는 상관관계가 나타나 이를 '호혜성의 원리'로 설명하고 있다. 즉 한 배우자의 언어적 공격이 심하면 상대방도 이와 유사한 폭력수준을 사용한다는 것으로 각 배우자의 행동은 상대 배우자의 행동에 의해 결정되거나 영향을 받음을 나타내었다. 이 연구는 비록 자녀세대인 고교생의 시각에서 부모의 행동을 조사했다는 제한점을 갖고 있으나 부부 양방의 갈등표출행동을 파악하려는 시도를 보였다는 의의가 있다. 따라서 남편의 아내에 대한 학대행위를 설명할 때 어느정도 일방적인 관계가 아닌 상호성, 호혜성의 측면이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되겠다.

가정학 분야에서는 일반가정을 대상으로 우리사회 전반적인 부부의 갈등표출행동을 탐색하고 있는 반면, 의학 분야나 한국 여성의 전화와 같은 일선 상담기관에서는 임상 및 상담장면에서 나타난 부부폭력 문제, 특히 피해 여성의 심각한 신체적, 정신적 손상을 보고하는 연구가 되어오고 있다. 가족폭력의 피해자는 대부분(73%) 결혼 1년 이내에 구타를 경험하고 있고, 구타당하는 부인들의 경우 가장 심한 상처로 유산과 탈구까지 경험하고 있어 상습적인 남편의 구타는 생명을 위협할 정도로 심각하다(김광일, 1994)고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관심이 미약한 것은 부부문제를 아주 사적인 문제로 규정하고 이를 방치함에 있다. 이렇듯 가정내에 방치하기에 매우 심각한 사회문제이면서도 부부간 폭력행동에 관한 신뢰성 있는 자료가 별로 없으므로 폭력을 행사하는 사람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이나 폭력행동을 촉진하는 변인을 분명히 규명할 필요가 있다.

폭력은 부부관계에서 일어나는 여러가지 갈등요인, 즉 결혼불만요인에서 나타나는 것으로 보여진다. 결혼만족도가 높을수록 부부간 언쟁이나 폭력행동이 낮았고(김정옥, 1985), 언어적폭력, 신체적 폭력과 결혼안정성은 부적인 관계(김정옥 등, 1993)라는 연구결과는 이를 뒷받침해 준다. 즉, 부부관계에서 나타나는 결혼불만요인이 가정내 폭력의 가능성을 높이는데 그중에서도 특히 남편의 외도는 가정내 폭력과 가장 높은 상관을 보였다고 한다. 결혼이 부부모두에게 성적인 배재를 전제하고 있고 이러한 전제가 깨어졌을 때는 심각한 갈등이 야기되며 이는 신체적 폭력으로 치닫는다고 할 수 있다.

한편, 남편의 음주가 아내학대의 중요한 요인이 된다고 한다. 학대받은 많은 여자들은 남편이 술에 취했을 때만 자신을 때린다고 한다. 그리고 경찰이나 전문가들도 폭력이 개입된 대부분의 부부

싸움은 음주와 관련되어 있음을 인정한다고 한다(델 마틴, 1992). 물론 음주 자체가 아내를 때리는 이유가 되는 것은 아니겠지만 음주는 부부간의 불화, 갈등을 폭력으로 몰고가는 촉매역할을 한다고 보여진다.

따라서 가정폭력에 부부관계나 남편의 음주패턴의 영향을 살펴보는 것은 가정에서 폭력이 일어나는 상황을 판단하는 데 아주 의의있는 작업이라고 하겠다.

Ⅲ. 연구방법

1. 자료의 수집 및 분석

본 연구는 경기도 시흥시 목감동과 연성동내 자연부락[1]의 배우자가 있는 주부를 대상으로 구조화된 설문지를 가지고 면접조사를 시행했다. 시흥시 목감동과 연성동은 행정구역상으로는 도시에 속하지만 신흥도시이며 농업을 하는 가구가 상당수 있는 지역으로서 농촌의 특성을 살리기 위하여 동사무소 사무장과 농민 후계자, 부녀회장들의 협조를 얻어 자연부락만을 본 연구의 대상지역으로 하였다. 이 마을에 거주하며 현재 남편과 같이 사는 부녀자를 대상으로 미리 작성된 질문지를 가지고 주민들을 가가호호 방문하거나 적당한 장소에서 모이게 하여 면접하였다. 예비조사는 1994년 4월 1일부터 15일까지 약 30명을 대상으로 하였고 이를 기초로 설문지 수정작업을 거쳐 본 조사는 같은해 6월 13일부터 8월 12일 까지 2개월에 걸쳐 실시하였다. 총 응답자 수는 150명이었고 본 연구자와 잘 훈련된 대학원생들이 면접하였다. 자료는 SPSS/PC+를 이용하여 빈도분포, 백분율, 분할표분석을 하였고 변수들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하여 상관분석과 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2. 측정 도구

갈등표출행동 : 부부간의 갈등을 측정하는 데 가장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는 Straus의 *Conflict Tactic Scale*을 번역,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응답자가 과거 일년간 부부간에 갈등이 생겼을 때 남편이 문항에서 제시한 행동-의논 및 토의, 흥분된 말, 물건부수기, 발로 차거나 때리기등 13문항-을 얼마나 자주 행했는지 대답하게 했다. 각 문항의 반응은 '전혀 없다'에서 '1년에 20번이상'에 이르는 5점 리커트 척도를 사용했다. 그리고 이 문항들은 이성적 방법, 심리/언어적 폭력, 가벼운 신체적 폭력, 심한 신체적 폭력행동으로 갈등표출 정도에 따라 분류되었다. 갈등표출행동 13문항의 신뢰도는 크론바흐α값이 .81로 양호하게 나타났다.

부부관계 : 결혼만족도는 응답자의 결혼생활에 대한 만족정도를 파악하기 위하여 '전반적인 결혼생활에 얼마나 만족하십니까?'를 물어 '매우 만족'에서 '매우 불만족'에 이르는 5점 리커트 척도를 사용하였다. 남편의 외도는 농촌부부의 외도에 따른 갈등이 있는지를 파악하고자 '남편의 외도 때문에 부부간에 속이 상하거나 싸운적이 있습니까'로 질문하여 '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항상 그렇다'의 5점 리커트 척도로 측정하였으나, 분석에 있어서는 '있다(1점)'과 '없다(0점)'로 더미화하여 사용하였다.

음주패턴 : 음주빈도와 음주량은 알콜과 갈등표출행동과의 관련성을 보기 위하여 측정되었다. 음주빈도는 '남편은 술을 얼마나 자주 마십니까?'로 묻고 '거의 매일'에서 '일주일에 두세번', '일주일에 한번', '한달에 한두번', '특별한 날에만', '전혀 마시지 않는다'까지 순서대로 여섯단계로 나누어 응답하게 하였다. 음주량은 '남편은 보통 술을 얼마나 드십니까?'로 물어 2홉들이 소주를 기준으로 '전혀 마시지 않는다'에서부터 '반병정도' '1병' '2-3병' '댓병' '무한대'까지로 측정하였다.

Ⅳ. 연구결과

1. 일반적 배경

조사대상 농가주부와 그 남편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이 다음 〈표 1〉에 제시되어 있다. 조사대상자의 연령은 30대(39.9%)와 40대(22.9%)가 가장 많

1)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부락

은 분포를 보이고 있으며 50대, 60대도 15%내외로 비교적 고른 분포를 보이고 있다. 이는 작금의 농촌노령화와 연결시켜볼 때 젊은 층이 많이 표집된 것으로, 본연구에서 의도적으로 고부가 동거할 경우에는 며느리를 우선적으로 포함시켰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조사대상자의 학력은 무학이 36.4%, 전체 응답자의 약 98%가 중졸이하로 나타나 비교적 낮은 교육수준을 보여주고 있다. 조사대상자 남편의 학력 역시 조사대상자보다는 다소 높았으나 비교적 낮은 수준(중졸이하)에 주로 편포되어 있다.

응답자 가구의 소득은 농사의 특성상 연소득으로 산출하였다. 연 1001만원-1500만원 수준의 소득을 갖는 농가가 27.3%로 가장 많았고 1000만원 이하가 약 40%에 달함으로써 농촌가계의 전반적으로 낮은 소득수준을 반영해 주었다. 결혼지속기간은 11~20년이 30.7%로 가장 많았고 10년이하(27.9%), 21~30년(21.4%), 31~40년(13.6%),

표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N=150)

변 인	구 분	빈 도	%	변 인	구 분	빈 도	%
본인연령 (세)	25~29	8	5.4	남편연령 (세)	25~29	1	.7
	30~39	59	39.9		30~39	46	30.8
	40~49	34	22.9		40~49	40	27.4
	50~59	26	17.6		50~59	34	23.3
	60이상	21	14.2		60이상	26	17.8
본인학력	무 학	51	36.4	남편학력	무학	32	23.4
	국 졸	35	25.0		국졸	32	23.4
	중 졸	51	36.4		중졸	64	46.7
	대 졸	3	2.1		고졸	9	6.6
연소득 (만원)	無~500	23	16.5	결혼지속 기간(년)	10이하	39	27.9
	501~1000	32	23.1		11~20	43	30.7
	1001~1500	38	27.3		21~30	30	21.4
	1501~2000	20	14.4		31~40	19	13.6
	2001~2500	9	6.5		41이상	9	6.4
	2501이상	17	12.2				
가족유형	부부가족	16	10.7	농업여부	농 가	118	81.4
	핵 가 족	72	48.3		비 농 가	27	18.6
	확대가족	61	40.9				

* 총 빈도수는 각 항목당 결측치로 다소 다를 수 있음

41년 이상(6.4%)의 순으로 나타났다.

가족유형은 부부가족과 핵가족이 59.0%, 확대가족이 40.9%로 확대가족의 비율이 상당히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농업여부는 농가와 비농가로 나누었는데, 조사대상 가구가 신흥도시와 인접한 지역인 관계로 비농가의 경우(18.6%)도 다소 포함되어 있으나 대부분(81.4%)이 농사를 짓고 있다.

2. 농촌 가정의 갈등표출행동 실태

농촌 부부의 갈등표출행동이 어떠한 양상으로 나타나는 지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표 2〉는 갈등표출행동 13항목의 응답빈도를 나타낸 것으로서

갈등표출행동 13문항을 그 행동의 정도로써 이성적 행동, 언어/심리적 폭력, 가벼운 신체적 폭력, 심한 신체적 폭력으로 구분하였다. 그리고 각 항목의 행동을 지난 1년동안 적어도 1번이상 경험한 적이 있는 경우는 '있다', 한번도 없는 경우는 '없다'로 크게 나누어 빈도와 백분율을 구하였다. 중앙의 __ 부분은 여러 항목으로 이루어진 각 갈등표출행동중 적어도 한문항 이상의 행동을 한 응답자의 비율을 나타내는 것으로, 이성적인 행동은 전체 응답자중 66.4%가 갈등표출행동으로 취하고 있으며 제3자에게 협조를 요청하는 방법보다는 의논 및 토의행동을 더 많이 사용하였다. 5문항으로 이

표 2. 갈등표출행동과 그 빈도분포

단위 : 빈도(%), N=150

표 현 행 동	없 다	있 다				
		소 계	1~3번	4~7번	8~12번	20번이상/년
이성적 행동		95(66.4)				
의논 및 토의	52(35.9)	93(64.1)	36	22	18	17
제3자에게 협조요청	109(75.7)	35(24.3)	24	6	4	1
언어/심리적 폭력		127(88.2)				
흥분된 말	34(23.3)	112(76.7)	43	27	17	25
침묵/묻는말에 무응답	59(40.4)	87(59.6)	30	17	22	18
큰소리	58(39.5)	89(60.5)	36	13	21	19
모욕적인 말/욕	76(51.7)	71(48.3)	26	14	15	16
발구름/문세게 닫기	78(53.4)	68(46.6)	32	10	17	9
가벼운 신체적 폭력		41(28.1)				
물건 부수기	112(76.2)	35(23.8)	26	4	3	2
부인에게 물건 던짐	121(82.9)	25(17.1)	16	4	3	2
부인을 밀기	124(82.1)	23(15.6)	16	4	1	2
심한 신체적 폭력		19(12.9)				
발로 차거나 때리기	131(89.1)	16(10.9)	6	5	2	3
몽둥이, 혁대등으로 구타	137(93.2)	10(6.8)	5	2	2	1
칼이나 흉기를 사용	142(96.6)	5(3.4)	1	2		2

* 결측치로 인하여 총빈도수는 다소 다를 수 있음

루어진 언어/심리적 폭력행동은 부부갈등시 대부분의 부부에게서 나타났다(88.2%). 그중 흥분된 말이 오가는 경우가 가장 많고, 큰소리, 무응답의 순으로 높은 분포를 보였다.

갈등을 신체적 폭력으로 해결하는 경우는 부인을 밀기등의 가벼운 신체적 폭력은 28.1%, 부인을 발로 차거나 때리는 등의 심한 신체적 폭력을 행사하는 경우는 12.9%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 갈등표출행동의 비율은 서로 배타적이지 않기에 여러가지 행동이 동시에 표출될 수도 있다. 〈표 2〉에 나타난 네가지 형태의 갈등표출행동이 한 시점에서 모두 나타날 수도 있고 갈등의 사안에 따라, 갈등이 일어날 당시의 상황에 따라 선택적으로 표출될 수도 있다. 그래서 농촌부부가 갈등표출행동을 어떻게 복합적으로 사용하고 있는지 살펴보기 위하여 앞서 구분한 4가지 갈등표출행동으로써 유형화하였다.

〈표 3〉은 갈등표출행동이 복합적으로 나타나는 10가지 유형을 제시하고 있다. 이들 유형을 부정적인 행동을 기준으로 이성적, 언어/심리적, 가벼운 신체적, 심한 신체적 폭력행동집단으로 구분하였다.

유형 1과 유형 2로 이루어진 이성적 집단은 갈등이 없거나 이성적인 행동만을 하는 가장 건전한 집단으로 전체의 12.1%를 차지하였다. 유형 3은 이성적 행동과 언어/심리적 폭력행동을 같이 사용하는 집단으로 10개 유형중 가장 많이 나타나는 유형이었다(40.7%). 유형 4는 언어/심리적 폭력행동만을 사용하는 유형으로 유형 3과 4를 묶어 언어/심리적 폭력집단으로 구분하였고 여기에 응답자 전체의 57.9%가 해당되었다.

표 3. 갈등표출행동의 유형으로 구분한 갈등표출행동집단

갈등표출행동 유형		%	갈등표출행동집단	%
유형 1.	갈등이 없음	8.5	이성적 행동집단-	12.1
유형 2.	A	3.6		
유형 3.	A+B	40.7	언어/심리적 폭력집단-	57.9
유형 4.	B	17.2		
유형 5.	A+B+C	14.2	가벼운 신체적 폭력집단-	17.1
유형 6.	B+C	2.9		
유형 7.	A+B+C+D	6.5	심한 신체적 폭력집단-	12.9
유형 8.	B+C+D	4.3		
유형 9.	A+B+D	1.4		
유형 10.	B+D	0.7		

A-이성적 행동 B-언어/심리적 폭력 C-가벼운 신체적 폭력 D-심한 신체적 폭력

유형 5와 6은 이성적, 언어/심리적 폭력행동과 더불어 가벼운 신체적 폭력행동까지 취하는 형태로 가벼운 신체적 폭력행동집단으로 정의하였는데 전체의 17.1%를 차지했다. 유형 7, 8, 9, 10은 심한 신체적 폭력행동을 행사하는 집단으로서 심한 신체적 폭력행동이 다른 갈등표출행동과 복합적으로 나타나는 양상을 보인다.

결국, 전체 조사대상자의 12.1%만이 이성적으로 갈등을 표출하고 나머지 87.8%는 적어도 언어/심리적 폭력 이상의 행동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중 30%는 부인에 대하여 신체적 폭력행동을 행사하였다.

이로써, 도시근교 농촌부부는 갈등표출행동중 흥분되고 모욕적인 말이나 큰소리를 내며 문을 세게 닫는 등의 언어/심리적 폭력을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으며 신체적 폭력행동이 나타날 때는 반드시 언어/심리적 폭력행동도 같이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다. 물론 이러한 결과가 모든 갈등상황 때마다 나타나는 것은 아니라고 할지라도 일반적으

로 신체적 폭력행동은 언어/심리적 폭력을 동시에 수반한다고 볼 수 있다. 김정옥(1985)의 연구에서 갈등표출행동으로 신체적 폭력을 행사하는 율이 적어도[2] 45%이상이 되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고, 또다른 연구(김정옥, 1988) 역시 가벼운 폭력집단이 42.5%, 심한 폭력집단이 9.0%로서 전체 응답자의 51.5%가 아내에게 신체적 폭력행위를 하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이로써 도시는 50% 내외의 남편이 부인에게 신체적 폭력으로써 갈등을 표출하고 있는 반면, 본 조사에서 본 농촌의 경우는 30%로 나타났다. 또한 가벼운 폭력과 심한 폭력을 나누는 기준에 있어 연구간 차이가 있어[3] 본 연구에서 심한 폭력집단(12.8%)이 더 많은 듯 보이지만 그의 기준으로 비교해 보면 본 연구의 심한 폭력집단은 7%에 해당한다. 따라서 도시의 갈등표출 행동이 농촌보다 더 과격하며, 신체적 폭력을 행사하는 비율도 농촌(7%)에 비해 도시(9%)가 더 높다고 할 수 있다.

이는 대도시 지역 가정이 시골가정보다 더 높은 율의 배우자 학대를 나타내었다고 하는 Straus et al(1980)의 결과와 그 맥락을 같이하고 있다. 한편, 우리나라 도시를 대상지역으로 하는 연구에서 김정옥(1985)과 김혜경(1986)은 남편의 직업과 아내학대와의 유의미한 차이를 보고함에 있어 농업, 생산직, 판매 및 서어비스직 종사자의 폭력도가 높았고 전문직, 전문기술직, 행정 및 사무직에서는 폭력도가 낮았다고 하였는데, 본 연구결과에 비추어 본다면 농업은 따로 분류되어 재해석 되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3. 갈등표출행동에의 영향변인 고찰

농촌부부의 사회 인구학적 특성, 부부관계, 남

표 4. 사회인구학적 특성별 갈등표출행동

단위 : % (빈도)

변 인	갈 등 표 출 행 동 집 단					x^2
	이성적	언어/심리적	가벼운신체적	심한신체적	전 체	
남편의 연령(세)						
25~39	2.3	76.7	14.0	7.0	100(43)	
40~49	5.3	44.7	26.3	23.7	100(38)	23.00***
50이상	23.7	52.5	13.6	10.2	100(59)	
남편의 학력						
무 학	17.2	55.2	13.8	13.8	100(29)	
국 졸	27.6	44.8	17.2	10.3	100(29)	9.66
중졸이상	5.6	63.4	18.3	12.7	100(71)	
가족유형						
부부가족	26.7	40.0	13.3	20.0	100(15)	
핵 가 족	10.3	50.0	22.1	17.6	100(68)	13.39*
확대가족	10.7	73.2	10.7	5.4	100(59)	
연소득(만원)						
1000이하	22.0	52.0	12.0	14.0	100(50)	
1000~1500	8.3	44.4	33.3	13.9	100(36)	14.36*
1501이상	5.6	72.2	11.1	11.1	100(54)	
계	12.1	57.9	17.1	12.9	100	

* $p<.05$ *** $p<.001$

2) 김정옥(1985)은 갈등표출행동을 의논과정, 언쟁과정, 폭력과정으로 분류하였고 각 과정에 해당하는 여러 항목의 빈도/백분율을 각각 제시하였기 때문에 폭력행동을 하는 전체 비율을 알 수 없었다. 따라서 가장 높은 율을 차지하는 항목을 기준으로 적었다.

3) 갈등표출행동중 '발로 차거나 때리기'를 본고에서는 심한 신체적 폭력으로 분류한 반면, 김(1988)은 가벼운 신체적 폭력으로 분류하였다.

편의 음주패턴에 따라 갈등표출행동이 다르게 나타나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연령, 학력, 소득, 가족유형과 결혼만족도, 외도로 인한 갈등, 음주빈도, 음주량을 몇개의 그룹으로 구분하고 이들이 4개의 갈등표출집단에 어떻게 분포하고 있는지 교차분석을 통하여 비교하여 보았다.

1) 사회인구학적 특성변인 (표 4)

연령 : 연령집단별로 갈등표출행동에 차이가 있는지 검증해 본 결과 P<.001수준에서 유의한 결과를 나타내었다. 30대 이하의 비교적 젊은 연령층은 다른 연령층보다 언어/심리적 폭력집단에 가장 많이 분포한 반면, 이성적 행동과 신체적 폭력행동집단에는 낮은 분포를 보였다. 중년층인 40대에서 신체적 폭력행동이 가장 많이 표출되어 50%가 신체적 폭력집단에 속해 있다. 노년층의 경우는 다른 연령층에 비해 이성적인 해결을 많이 하고 신체적 폭력집단에는 낮은 분포를 보이고 있다. 이는 부부간 폭력행위가 30대 후반에서 50세 까지의 부부에게서 많이 일어난다는 Snell등 (1964)과 Gelles (1972)의 견해와 맥락을 같이하나 '부부폭력이 거의 모든 연령층에서 일어나나 젊은 층에서 그 비율이 훨씬 높다'(김정옥, 1988), '연령별 차이가 없다'(김정옥 1985)는 우리나라 기존 연구결과와는 상이한 패턴을 보인다.

"아유, 요새사람들 같으믄 우리같이 안살어. 우리때처럼 남편들이 때리면 지금 사람들은 벌써 이혼했지. 말도 말어. 어떻게 살았는지 말여". (50대. 농업과 소규모가게운영)

면접당시 50대 여성의 응답은 부부갈등시 요즘과 과거의 갈등표출행동이 매우 달라졌음을 스스로도 느끼고 있음을 보여 준다. 연령의 증가와 함께 남편의 신체적 폭력행동의 감소는 부부간의 권력구조에서 여성이 더 유리해지는 측면을 반영한 것이며 거시적으로 보면, 과거에는 남편의 폭력이 만연했을 뿐더러 문화적으로 정당화되었으나 현대에 와서는 이를 용인하지 않게 된 즉, 농촌에서도 역시 가부장적인 구조가 퇴색해가는 문화적 변화로써 설명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젊은 사람들은 갈등표출행동이 일방적이 아닌 양방적인 행동이 되고 있음을 면접결과 알 수 있었다. 이들은 갈등상황시 부부 양방이 적극적으로 대응하거나 비신체적인 공격행동으로써 갈등을 표현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결과는 현대사회가 요구하는 부부간의 평등성이 농촌의 부부관계에도 영향을 준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통계적 분석결과 연령에 따라 일관된 결과가 나타나지 않았으므로 해석상 무리가 있기에 후속연구에서는 cohort에 따라 변화하는 부부관계의 패턴을 보다 심도있게 다루어 볼 필요가 있다고 보여진다.

학력 : 농촌부부에서 남편의 학력은 아내에 대한 갈등표출행동에 별 관계를 갖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응답자 남편의 약 반수정도가 중졸의 학력을 갖는 비교적 동질적인 집단이라는 점과 농촌에서 교육수준이 갖는 의미가 직업과 직접적으로 관계되는 도시와는 다를 수 있다는 점에서 나타난 것일 수 있다.

가족유형 : 가족유형은 부부간 갈등표출행동에 유의한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부부간 갈등표출행동에 부부만이 거론될 것이 아니라 가족구조적인 맥락에서 이를 살펴보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데 어른이 계시는 경우 부부간 갈등이 파생되기도 하지만 대부분의 부부는 감정을 자제하게 되고 또 어른은 이들 부부관계에 직접, 간접적으로 관여를 하기에 조심하게 되는 경향이 있다.

우리는 한번 싸우면 크게 싸워요. 근데 요즘엔 덜 싸워요. 일년에 한두번이나 될까? 예전에 시댁에서 같이 살땐 자주 싸웠지. 큰소리는 많이 못냈지만. (30대, 수퍼운영)

아유-, 우린 그런거 없어요. 어른들 계시는데 그냥 저냥 넘어가요. (29세, 농사)

확대가족인 경우 부부가족이나 핵가족인 경우보다 남편의 신체적 폭력행동집단에의 분포가 낮고 언어 심리적 행동집단에 많이 편포되어 있는 것은 갈등은 많으나 그 표출에 있어 과격한 행동을 자제하는 경향을 나타내 주는 결과라고 해석할 수 있다.

소득 : 소득집단과 갈등표출행동간에 p<.05 수준에서 유의한 결과가 나타났으나 소득에 따른 일관된 방향성은 나타나지 않고 중간소득 집단에서 신체적 폭력행동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농촌지역의 소득이 사실상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나 중간집단인 경우에도 연소득 1500만원 이하여서 도시 저소득층의 소득수준에 불과하다. 따라서 연소득 1500만원 이하를 저소득층으로 묶어 본다면 소득이 낮은 경우, 보다 신체적 폭력집단에 많

이 분포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기존연구결과(김정옥, 1985)에서도 소득이 낮을수록 폭력도가 높았다고 보고하고 있다.

2) 부부관계 변인

농촌부인은 그들의 결혼만족정도에 대해 보통이라는 응답을 가장 많이 했으며 불만족 하기보다는 만족하는 편이 두배이상 높았다. 결혼만족 정도와 갈등표출행동간의 관계를 보면 불만족하는 경우 신체적 폭력행동이 다소 높게 나타났지만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다(표 5).

남편의 외도로 인한 갈등은 응답자의 9%정도가 지난 1년동안 경험했다고 응답하고 있으며 이들중 이성적인 해결을 한다는 응답자는 한명도 없었고 모두 언어 심리적 폭력과 심한 신체적 폭력행동집단에 가장 많이 속해 있었으며 신체적 폭력집단에 58.4%가 속하는 등 외도로 인한 갈등과 갈등표출행동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관계를 갖고 있다. 외도로 인한 갈등을 가진 부부중 반수이상에서 갈등이 신체적 폭력행위로 발전하는 것을 볼 때 부부관계에서, 그리고 가정폭력 문제에서 남편의 외도는 그 중요성이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는 김정옥 등(1993)의 외도와 부부간 언어적/ 신체적 폭력과의 강한 상관관계를 나타낸 결과와 일치하는 것이다.

표 5. 부부관계와 갈등표출행동

단위 : %(빈도)

변 인	갈등표출행동집단					x^2
	이성적	언어/심리적	가벼운신체적	심한신체적	전 체	
결혼만족도						
불만족	4.8	52.4	19.0	23.8	100(21)	
보 통	9.1	50.1	19.7	12.1	100(66)	7.37
만 족	19.2	59.6	11.5	9.6	100(52)	
외도로 인한 갈등						
없 다	12.3	59.8	18.0	9.8	100(122)	10.83**
있 다	-	41.7	16.7	41.7	100(12)	
계	12.1	57.9	17.1	12.9	100	

** P<.01

표 6. 음주패턴과 갈등표출행동

단위 : %(빈도)

변 인	갈등표출행동집단					x^2
	이성적	언어/심리적	가벼운신체적	심한신체적	전 체	
음주빈도						
거의 매일	6.9	58.6	13.8	20.7	100(29)	
일주에 2~3회	5.7	71.4	11.4	11.4	100(35)	13.35
한달에 1~4회	8.3	58.3	22.2	11.1	100(36)	
거의 안마심	25.0	45.0	20.0	10.0	100(40)	
음주량						
전혀 안마심	28.6	42.9	21.4	7.0	100(28)	
소주 반병	12.5	66.7	12.5	8.3	100(48)	23.00***
소주 1병	9.4	65.6	18.8	6.3	100(32)	
소주 2~3병 이상	-	50.0	20.0	30.0	100(30)	
계	12.1	57.9	17.1	12.9	100%	

*** P<.001

3) 음주패턴 변인

남편의 음주패턴에서 음주빈도는 갈등표출행동에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음주량과는 매우 높은 관계를 나타내고 있다(표 6). 음주와 아내에 대한 폭력은 면접시 응답자와의 인터뷰에서도 잘 드러나는데,

농촌사람들 참 순해요. 뭐 술이나 마시면 좀 그럴까. 그렇지 않으면 여자들 때리고 그러는 사람 없어요(30대, 농사)

남편의 음주가 부부간 갈등으로 인한 스트레스로 시작되었는지, 지나친 음주가 부부간 갈등과 이에 따른 폭력행동을 유발했는지는 알 수 없으나 음주량이 가장 많은 남편집단의 50%가 신체적 폭력집단에 포함되는 것을 볼때 그 밀접한 관계를 입증할 수 있었다. 반면, 음주를 전혀 하지 않는 남편의 경우 상대적으로 높은 이성적 행동을 보여 주어 알콜문제가 부부간 공격성에 큰 영향을 준다(Stets, 1991)는 결과와 일치한다.

4. 신체적 폭력행동 관련변인에 대한 중회귀분석

갈등표출행동중 가장 부정적인 결과는 배우자에 대한 신체적 폭력일 것이다. 따라서 갈등표출행동중 신체적 폭력행동과 관련되는 변인을 규명하기 위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신체적 폭력행동의 회귀모형에서는 남편의 연령, 남편의 학력, 소득, 가족유형의 사회인구학적 변인와 결혼만족도, 외도로 인한 갈등의 부부관계변인, 그리고 음주빈도와 음주량의 음주패턴 변인을 독립변인으로 하여 회귀식을 구성하였다. 회귀분석에 포함된 변인들의 상관관계분석 결과가 〈표 7〉에 제시되어 있다. 독립변인들의 상관관계가 .60을 넘지 않아 다중공선성의 문제는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보고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회귀분석에서 종속변인로 사용한 신체적폭력행동 점수는 신체적 폭력행동에 해당하는 '물건부수기'.....'칼이나 흉기 사용하기' 등 6항목, 5점척도의 평균값으로 취하였다.

(표 8)에 제시된 남편의 부인에 대한 신체적 폭력행동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 8개의 독립변인이 신체적 폭력행동의 39.5%를 설명하는 것으로 나

표 7. 변인간의 상관관계

변 인	(1)	(2)	(3)	(4)	(5)	(6)	(7)	(8)	(9)
(1) 남편연령	1.000								
(2) 남편학력	-.597*	1.000							
(3) 소득	-.224*	.227*	1.000						
(4) 가족유형	-.302**	.234*	.164	1.000					
(5) 결혼만족도	.002	.057	.185	.025	1.000				
(6) 외도-갈등	.215	-.205	.035	-.132	-.236*	1.000			
(7) 음주빈도	.224*	-.113	-.084	-.118	-.042	.056	1.000		
(8) 음주량	-.020	.013	.043	.110	-.192	.131	-.216	1.000	
(9) 신체적폭력행동	.088	.018	-.120	-.244*	-.275*	.464**	.072	.314**	1.000

* P<.01 ** P<.001

표 8. 신체적 폭력행동에 관한 회귀분석 결과

독 립 변 인	B	Beta
음주량	.912162	.290719***
남편학력	.756580	.191427
결혼만족도	-.390855	-.096063
음주빈도	.221191	.093168
가족유형	-.876980	-.234502**
소득	-6.24755E-04	-.138489
외도-갈등[a]	2.864176	.414680***
남편의 연령	-.003879	-.013221
(Constant)	-1.700596	
R^2=.39450		

a : 가변수 처리-외도로 인한 갈등, 0=없다/1=있다.
** P<.01 *** P<.001

타났다. 설명력이 가장 높은 변수는 외도로 인한 갈등이어서, 외도로 인한 갈등이 있으며 음주량이 많고 핵가족일수록 남편의 부인에 대한 신체적 폭력행동이 부부간 갈등시 많이 발생함을 알 수 있다.

V. 요약 및 결론

본 연구는 지금까지 연구영역으로 소외되어온 농촌지역의 부부관계를 고찰할 목적으로 도시근교 농촌지역을 대상으로 부부간 갈등표출행동을 조사하였다. 기존의 연구들은 주로 도시의 부부관계에 치중하고 있으며 신체적 폭력행동에만 초점을 맞춤으로써 전반적인 갈등표출행동 양상을 간과해 왔다. 특히 농촌부부 관계를 실증적으로 다루어 오지 못했으면서도 막연히 아직도 농촌은 전통적인 요소가 많이 잔재해 있는 것으로 추측하고 있어 사실상 이를 입증할 경험적 자료의 뒷받침이 없다는 문제의식에서 시작되었다.

본 연구는 신흥도시이지만 아직도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부락이 많은 경기도 시흥시의 목감동과 연성동내 자연부락을 대상으로 농촌 기혼여성 150명을 가가호호 방문하거나 적당한 장소에서 모임을 갖고 개별면접하여 자료를 수집하였다. 그리고 이들 남편이 부부간 갈등상황에서 지난 1년동안 어떤 행동을 얼마나 했는지 조사하고 그 유형을 분류하여 이성적 행동집단, 언어/심리적 폭력집단, 가벼운 신체적 폭력집단, 심한 신체적 폭력집단으로 갈등표출행동 집단을 구분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갈등표출행동이 연구대상자와 그 남편의 사회인구학적 배경변인이나 부부관계, 남편의 음주패턴과 관련이 있는지 살펴보았다.

본 연구결과 농촌부부의 갈등표출행동은 언어/심리적 폭력이 가장 많은 분포를 보였고 응답자의 30%가 배우자로부터 신체적 폭력행동을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체적 폭력행동에는 항상 언어/심리적 폭력이 수반되고 있었으며 이성적으로 갈등을 해결하는 경우는 겨우 12.1%에 불과하여 세련되지 못한 갈등표출행동패턴을 보여주고 있다. 즉, 이성적인 행동을 하는 집단은 12.1%, 언어 심리적 폭력을 사용하는 집단은 57.9%, 가벼운 신체적 폭력을 행사하는 집단은 17.1% 그리고 심한 신체적 폭력행동을 하는 집단은 12.9%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러한 결과는 도시와 신체적 폭력행동을 비교해 보았을 때 현저히 낮은 것으로 도시의 경우(김정옥, 1988) 50%이상이 신체적 폭력집단에 포함된 데 비해 농촌은 30%에 그치고 있으며 심한 폭력집단의 비율도 더 낮았다. 이러한 결과는 과거 농촌의 전통성, 남존여비의 위계관계가 아직도 여전하다는 논리에서 인식의 전환을 요구하는 것으로 보여 농촌의 전통적인 패턴이 현대사회에 적응하고 변화하는 단면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으며 또 한편으로는 가정이라는 사적인 공간까지도 열려있는 농촌사회의 문화적 특성때문인 것으로 보여진다. 그런데 사실상 이러한 비교는 연구의 시점과 대상지역에 있어 대표성이 없는 탐색적인 시도에 불과하다는 문제가 있어 보다 대표성있는 도시와 농촌 표본으로 비교하는 작업이 후속연구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본다.

갈등표출행동에의 영향변인을 살펴보기 위하여 사회인구학적 배경변인과, 기존 문헌들에서 밀접한 관련을 보고하고 있으나 경험적 결과가 미약한 변인인 결혼만족도, 남편의 외도로 인한 갈등, 음주빈도, 음주량이 조사되었다. 사회인구학적 변인을 몇개의 집단으로 구분하고 4개의 갈등표출행동집단에의 분포를 살펴본 결과 연령과 소득, 가족유형이 유의하게 나타났다. 연령별로 보았을 때 다른 집단에 비해 30대 이하의 젊은 층에서는 언어/심리적 폭력행동집단 비율이 매우 높았고 40대 중년층에서는 신체적 폭력행동집단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50대이상의 노년층에서는 이성적 행동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젊은 층의 신체적 폭력행동이 낮음은 평등한 부부관계의 반영인 것으로, 노년층은 부부간 권력의 역학관계 변화와 전통적인 가부장적 사고에서의 탈피로 설명하고 있으나 연령에 따라 일관된 결과를 보이고 있지 않기 때문에 보다 심층적인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된다.

남편의 학력에 따른 갈등표출행동의 차이는 검

타난 가운데 소득이 높은 집단에 비해 중간정도의 집단에서 신체적 폭력행동이 높게 나타났으나 농촌지역의 낮은 소득수준을 감안할 때 소득이 낮을수록 신체적 폭력행동이 증가한다는 기존연구결과를 지지하는 것으로 보인다. 가족유형은 부부간 갈등표출행동에 배경이 되어 확대가족의 경우 부부가족이나 핵가족에 비해 언어/심리적 폭력은 가장 높았으나 신체적 폭력행동은 가장 낮게 나타나 확대가족이 안고있는 갈등요인의 다중성이라는 부정적인 측면과 어른이 있는 경우 상호간에 극한 상황까지 가는 것을 피하게 되는 긍정적인 측면을 동시에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부부관계에 있어서는 결혼에 불만족하는 경우 신체적 폭력행동을 더 많이 보고하고 있었으나 유의도는 없었다. 반면 남편의 외도로 인한 갈등은 유의차가 나타나 외도로 인한 갈등을 경험한 부부는 반수이상이 신체적 폭력행동집단에 속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부부관계에서 배우자의 부정행위가 야기하는 문제의 심각성과 폭력행동과의 연계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결과라 하겠다. 음주패턴에서는 남편의 음주빈도는 상관이 없었으나 음주량은 신체적 폭력행동과 높은 관계를 갖고 있었다. 음주량이 가장 많은 남편집단의 50%가 신체적 폭력을 행사하였는데 이는 알콜문제가 부부간 공격성에 주는 영향을 나타낸다. 반면 음주를 전혀 하지 않는 경우 상대적으로 매우 높은 이성적 행동을 보여주었다. 신체적 폭력행동에의 영향변인을 알아보기 위한 회귀분석 결과, 회귀식에 넣은 8개의 독립변인이 신체적 폭력행동의 39.5%를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설명력이 가장 높은 변수는 남편의 외도로 인한 갈등이었다. 그리고 음주량과 가족유형이 남편의 신체적 폭력을 설명하는 의미있는 변수로 나타나고 있다. 즉, 외도로 인한 갈등이 있으며 음주량이 많고 핵가족일수록 남편의 부인에 대한 신체적 폭력행동이 부부간 갈등시 많이 발생했다는 결과를 보여주었다.

이상의 결과들을 해석하는데 있어 본 연구의 자료상 주의를 요한다. 부부 관계의 일면으로 부부갈등이 표출되는 방법을 살펴보는 연구인데도 농촌부부 모두를 대상에 포함시키지 못하고 남편이 부인에게 하는 표출행동을 부인에게 응답하게 함으로써 남편의 입장이나 부인의 남편에 대한 갈등표출행동을 파악하지 못한, 기존연구들이 갖고 있는 제한점이 본 연구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또한 부부간의 폭력행동을 측정함에 있어서 면접시에 야기되는, 응답자의 솔직하지 못한 답변을 가려내지 못하고 그들의 응답에 의존할 수 밖에 없다는 점 때문에 사실상 폭력집단이 여러 사유로 축소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마지막으로, 경기도의 한 농촌 지역을 대상으로 하였고 표본의 수도 적은 탐색적 연구이기에 표본의 대표성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제한점이 있다.

Ⅵ. 참 고 문 헌

김광일, 1994, 구타당하는 아내의 무기력, 자아강도 및 자아기능에 관한 연구, 여성연구, ; 113-137.

김양희, 1990, 한국사회의 가족갈등에 관한 연구 -농촌가족과 도시가족의 비교연구-, 사회정책연구12 : 104-148.

김정옥, 1985, 도시부부의 갈등 해결표출방법에 관한 연구 - 폭력행위를 중심으로-, 대한가정학회지 23(2) : 91-110.

김정옥, 1988, 가정폭력에 관한 연구 - 아내학대를 중심으로-, 한국가정관리학회지 6(1) : 71-92.

김정옥, 1993, 부부폭력에 대한 가정관리학적 접근, 대한가정학회지, 31(2).

김정옥, 이동수, 윤병철, 문수백, 1993, 가족폭력 관련변인과 결혼불안정성과의 관계분석, 가족학논집, 제5집 : 61-87.

델 마틴 저, 정세웅 역, 1992, 매맞는 여자들, 한국문연.

박혜인, 1991, 한국농촌의 부부관계에 대한 가족발달적 접근, 한국농촌생활과학회지 제2권 : 109-123.

변화순, 1992, 부부간의 갈등과 해소, 여성사회사연구회편 '한국가족의 부부관계', 사회문화연구소.

송영자, 1990, 부부간의 갈등표출방법에 관한 연구, 숙명여대 석사학위논문.

전춘애, 1989, 사회계층에 따른 부부의 권력과 폭력과의 관계, 대한 가정학회지. 27(3) : 133-146.

조옥라, 1990, 도시빈민가족과 농촌 영세빈농가족의 비교, 여성한국사회연구회 편, '한국가족론', 까치.

전효정, 1995, 한국부부의 갈등해소와 갈혼적응도 : 애착유형, 비교수준과 동기의 영향. 가족학연구회 발표문.

한경혜, 장미나, 1993, 농가주부의 의사결정참여, 역할부담과 생활만족도의 관계에 대한 연구, 한국농촌생활과학회지 4(1) : 45-56.

Gelles, R. J., 1972, The violent home. Sage Publications.

Gelles, R. J, 1982, Applying Research on Family Violence to Clinical practice.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46 : 467-472.

Goode, W. J., 1971, Force and Violence in the Family,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33(4) : 624-636.

Snell, J. E., Rosenwald, R & Robey A., 1964, The Wife-beater's Wife, Archives of general psychiatry 11 : 107-112.

Sprey, J., 1979, Conflict Theory and the Study of Marriage and Family, in Contemporary Theory about the Family, Vol. 2. : 130-159.

Stet, J. N., 1990, Verbal and Physical Aggression in Marriage ,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52 : 501-514.

Straus, M., 1979, Measuring intrafamily conflict and aggression : The conflict tactics scales,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41 : 75-88.

Straus, M., 1973, A General Systems Theory Approach to a Theory of Violence Between Family Members, Social science Information. 12 : 105-125.